

## 러시아 자동차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 1. 러시아 자동차시장 최근 동향

- 2009년 경제위기 여파로 러시아내 자동차 판매 급감(약 49% 감소)
  - 2008년 판매 대비 약 49% 감소한 146만 대 기록
    - 금액기준 690억 달러에서 268억 달러로 하락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과거 5년간 연평균 20%의 성장으로 BRICs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 온 러시아 자동차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음.
    - 2009년 BRICs 국가 중 유일한 감소세<sup>1)</sup>
      - 중국(1,350만 대) 44%, 인도 16%, 브라질 16% 각각 증가
      - 독일 23%, 프랑스 11% 각각 증가
      - 일본(470만 대) 10%, 영국 6.4%, 스페인 17.9%, 이태리 0.2% 각각 감소
  - 2008년 상반기 러시아 시장 자동차판매가 세계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면서, 2008년 중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의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유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9년 자동차판매는 2008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1) 유럽국가 중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은 정부의 신차구입 지원확대 프로그램(신차교체시 정부보조금 지급, 최대 2,500유로 지원 등)으로 급격한 신차수요 감소를 막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자동차 판매가 증가함.

- 국가별 자동차 내수규모(2008년): 미국 1,340만 대, 중국 940만 대, 일본 510만 대, 독일 340만 대

<표 1> 연도별 자동차 생산 및 판매현황

단위: 만 대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판매대수	1,462	1,565	1,995	2,604	3,030	1,462
증 감 륜	18.4%	7.0%	27.5%	30.5%	16.4%	-49%

주: 승용차(Passenger Car)와 경상용차(LCV)를 합한 수치임.

자료: Global Insight.

#### □ 자동차 판매 급감 원인 분석

-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증가 및 소비심리 약화, 일부 금융기관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중단 또는 고리의 할부 금융비용, 루블화 약세 등이 영향을 미침.
  - 특히 지역적으로 튜멘, 사마라, 로스토프, 스페르로프 지역 등에서 신차판매량이 60% 이상 급감
- 일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신차 수요 급감을 막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실기하여(2008년 가을 입안 검토 시작, 2009년 5월부터 실시), 동 정책으로 인한 판매대수 증가분은 약 7만 대에 그침.
-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어려워진 자동차 판매 시장 여건 하에서 2009년 초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전체적인 자동차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2009년 초 나타난 루블화 약세도 자동차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신차 및 중고차 판매가 급감하였는데 특히, 수입 중고차의 경우 2009년 초 도입된 오염방지 관세 등으로 2008년 39.5만 대 대비 97% 감소한 1.2만 대로 저조하였음.
- 러시아 국내산 자동차와 러시아 내에서 조립된 외국산 자동차의 판매 감소는 각각 44%, 38%로 수입신차 감소폭(57%) 보다 작게 나타남.

<표 2> 2009년 러시아 자동차 판매량

구 분	판매대수 (천 대)	2008년 대비	판매액 (10억 달러)	2008년 대비
러시아 국산 자동차	390	-44%	3.5	-0.47%
러시아내 외국산차	360	-38%	6.1	-0.43%
수입 외국산 신차	640	-57%	17	-0.62%
수입 외국산 중고차	12	-97%	0.2	-0.97%
계	1,402		26.8	

자료: PwC.

#### □ 러시아 내 주요 세계 자동차업체 판매 동향

- 2009년 러시아 시장 내 최대 판매 자동차업체는 Lada이며, 그 외 Chevrolet, Ford, 현대자동차, Renault, 기아 등이 상위권을 차지함.
- 기아는 2008년 판매 13위에서 2009년 6위로 큰 폭의 판매신장을 보였는데, 기아 Sportage가 전년 대비 106%의 판매 증가를 보임.
- 현대자동차는 인기차종인 Getz와 2009년 출시한 후속차종인 i20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음.

&lt;표 3&gt; 2009년 러시아 시장 내 판매순위

'09년 순위	'08년 순위	자동차업체명	판매대수(대)	2008년 대비(%)
1	1	Lada	349,490	44
2	2	Chevrolet	104,398	56
3	5	Ford	82,083	56
4	3	Hyundai	74,607	61
5	9	Renault	72,284	33
6	13	Kia	70,088	20
7	4	Toyoda	68,731	64
8	6	Nissan	64,221	56
9	7	GAZ	58,205	56
10	11	Daewoo	51,414	46
11	8	Mitsubishi	41,354	63
12	17	Volkswagen	39,488	22
13	15	YAZ	34,660	36
14	10	Opel	34,277	65
15	16	Skoda	33,002	35
16	14	Mazda	30,643	58
17	18	Peugeot	29,748	38
18	19	Suzuki	25,335	34
19	12	Honda	23,222	74
20	20	FIAT	18,100	31
21	25	BMW	16,350	11
22	26	Audi	15,009	12
23	31	Citroen	12,388	1
24	27	Mercedes-Benz	12,050	28
25	22	Subaru	9,598	56
26	24	Land Rover	9,275	55
27	30	SsangYong	9,020	37
28	38	Geely	7,681	103
29	-	Chance	7,344	-
30	23	Volvo	6,894	67
계			1,465,917	49

자료: EBA(European Bussiness Association), Expert.ru에서 발췌.

- 2009년 가장 판매 부진을 보인 차는 Toyota Corolla와 Mitsubishi Lancer로 각각 전년 대비 75%, 76% 판매 감소를 기록
  - 일본 엔화강세의 영향 등으로 Honda는 전년 대비 74% 감소함. (종전 12위에서 19위로 추락)
  - 특히 일본 자동차업체 중 선두업체인 Toyota는 64% 감소(종전 4위에서 7위로 하락)하였는데, 현지자동차 생산 증대를 통한 현지차량 가격 조정을 통해 급격한 판매 감소를 막을 수 있었음.

□ 러시아내 모델별 자동차 판매 순위

- 러시아 정부 구매 지원 차종과 러시아내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외국 자동차업체 중 Renault와 Volkswagen 등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 특히 Renault는 2009년 저가 인기모델인 Renault Logan(러 정부 구매 지원차종)을 앞세워 판매대수에서 Ford의 Focus 누르면서 2009년 차량판매 기준 9위에서 5위로 도약함.
- 경제위기에 따른 시장조정기에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러시아내에서는 BMW, Audi와 같은 프리미엄급 자동차의 판매 감소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표 4> 2009년 러시아 시장내 모델별 판매순위

'09년 순위	모델명	자동차업체명	판매대수	'08년 대비(%)
1	Priora	Lada	99,473	22
2	Samara	Lada	90,428	46
3	2105/2107	Lada	67,216	60
4	Kalina	Lada	60,746	35
5	Logan	Renault	53,869	27
6	Focus	Ford	52,108	44
7	Lacetti	Chevrolet	29,362	64

8	Nexia	Daewoo	28,233	44
9	4×4	Lada	26,726	10
10	Niva	Chevrolet	24,520	48
11	Matiz	Daewoo	23,181	48
12	Lanos	Chevrolet	23,170	53
13	Astra(Astra Cabrio 포함)	Opel	18,952	55
14	Cee'd	Kia	18,943	24
15	Getz	Hyundai	18,560	51
16	Camry	Toyota	16,452	41
17	Corolla	Toyota	16,067	75
18	Aveo	Chevrolet	15,996	53
19	Tucson	Hyundai	14,299	33
20	Lancer X	Mitsubishsi	13,795	76
21	Sportage	Kia	13,717	106
22	Qashqui	Nissan	13,640	57
23	Mazda3	Mazda	13,006	67
24	Grand Vitara	Mercedes-Benz	12,679	36
25	New X-Trail	Nissan	11,505	53

자료: EBA, Expert.ru에서 발췌.

## 2. 2010년 러시아 자동차 판매 전망

### □ 러시아 자동차 공업부와 자동차협회(Autostat) 전망

- 자동차 판매 감소 추세의 저점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계절적 비수기인 2010년 1~2월 중 자동차 판매가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신규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55만 대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기존 러시아 자동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면서, 3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자동차 신차 교체 시 5만 루블(약 1,660 달러)을 정부가 보조할 예정임(정부 예산 110억 루블 배정).
- 동 프로그램에 따라 신차수요가 약 10만 대 촉진될 전망

- 금년 중 정부조달차량 50개 차종 발표
- AutoBaz의 경차, GAZ의 7개 모델, YAZ의 8개 모델, Ford Focus, Fiat Albea, 기아 Spectra, 현대 Accent, Renault Logan, Skoda Fabia 등

□ Pricewaterhouse Coopers(PwC) 전망

- 2010년 자동차 판매 예상(130만 대 ~ 160만 대)
  - 낙관적 시나리오: 전년 대비 약 15% 성장한 160만 대
  - 비관적 시나리오: 전년 대비 약 5% 감소한 130만 대
- PwC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하고 있는데, 러시아 자동차시장 전망의 불가측성 요인으로 루블화환율 변동, 대출금리, 자동차 신용대출규모, 소비자 구매심리, GDP 수준, 세계경제회복 속도, 국제 유가 수준, 러시아정부의 경제위기극복 프로그램의 달성 여부 등을 들고 있음.
- 2008년 수준(약 280만 대) 회복까지는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EBA(European Business Association) 전망

- 2010년 판매전망: 2009년 수준 유지

□ Boston Consulting Group 전망

- 2011~2014년 기간 중 매년 15% 판매 성장 전망
  - 동기간 중 선진국 시장내 판매는 약 2% 성장 전망
  - 러시아는 2009년 약 50% 정도 판매 급감에 따른 반작용으로 향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매가 회복될 전망
- 종전 경제위기전 수준 판매량(약 300만 대) 회복까지는 약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최소 10년간 세계 자동차시장은 BRICs가 주도할 것임.
  - 2014년 BRICs 시장내 판매는 전 세계판매량의 30% 이상 점유 예상
  - BRICs는 평균 6% 성장
  - 선진국 시장 약 2% 성장 전망

#### □ 자동차판매 회복 전망

- 2010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자동차 판매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산업의 고용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영이 어려운 자국 자동차업체 앞 금융·세제 지원 외에 구매자 앞 자동차 할부금융 확대, 폐차 보상제 실시, 차량딜러들의 A/S 확대 등 각종 수요 진작책을 쓰고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증가 및 구매심리 저하 등으로 종전(2008년) 판매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안정된 국제유가 흐름이 지속되고, 최근 시행된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2010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자동차 판매는 크게 증가할 전망

### 3. 향후 러시아 자동차 산업 전망과 시사점

#### □ 러시아 자동차시장,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2007년 기준 러시아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5.1명당 1대 수준으로 미국, EU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보다 낮아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경우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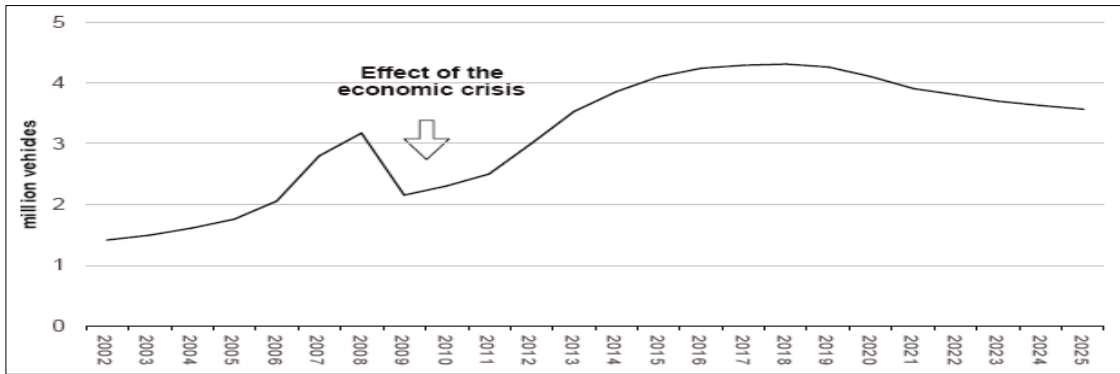


<표 5> 국가별 자동차 보급률 비교  
(자동차 1대당 인구, 2007년)

미국	서유럽	체코	폴란드	헝가리	한국	러시아
2.3	2.0	2.4	2.6	3.3	4.0	5.1

- PwC은 러시아 자동차시장은 2012년 이후에는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까지 인구 2.5명당 1대 수준으로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러시아 자동차 판매량 장기 전망



자료: PwC.

□ 글로벌 자동차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현지생산체제 구축 강화 필수

- 현재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러시아에 현지생산 공장을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는 바, 향후 러시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지생산체제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임.
-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현지생산 자동차의 품질 개선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장 확대를 꾀할 것이므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30%)을 감안할 때 완성차 수출을 통한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는 어려운 실정
- 러시아 정부는 자국산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자동차업체와의 합작투자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쌍용차 및 Fiat사 모델을 조립·생산하던 Severstal-Avto그룹 계열의 Sollers사는 Fiat사와 '10년 2월 12일 연간 50만 대 규모의 생산을 목표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
- 2009년 대규모 적자에 따른 부도사태에 직면했던 러시아 최대 국영자동차사인 AvtoVAZ는 '09년의 총 25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 및 르노와의 신차 개발기술 지원 이어 '10년에는 르노와 연산 80만 대 규모의 합작생산을 추진 중임.

□ 완성차업체와 함께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의 동반 진출도 필요

- 자동차부품의 모듈화, 부품 현지조달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고객앞 A/S 편의 제공 등을 감안할 때, 완성차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동반 진출도 필요
- 부품업체들은 우리나라 완성차 생산업체에 대한 납품을 통해 안정된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현지 러시아 국내자동차업체 및 글로벌 자동차업체로의 판로 확대도 가능

【모스크바 사무소 제공】